

# IT'S TIME TO RIDE

## MOTORCYCLE CULTURE

# MAGAZINE

# 2024

HARLEY-DAVIDSON®



#SUMMER

# EDITOR'S NOTE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20년 지기 친구에게 대뜸 문자가 왔다..

‘지루함. 하지만 힘들’

이 짧은 문자는 내 마음에 접이식 우산처럼 작은 그늘로 자리했다가, 이내 경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 밤하늘을 올려볼 때처럼 크고 유일한 질문으로 확장됐다. 처음에는 문득 문득 생각나서 ‘배부른 소리한다 짜식이’ 하던 게, 최근까지는 영하루 종일 신경 쓰였다. 이 기분을 뭐라 정의하기가 힘들다.

“그래, 나도 자려고 누울 때마다 아침이 기다려져서 뱃속이 간지럽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내 싱겁고 애매한 대답은 친구의 괴로움과 내 찝찝한 기분 중 어떤 것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으며 자식들은 속 썩이지 않고 잘 크고 있고, 적당히 취미생활 하면서 일 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가는 그 삶이 왜 괴로운 걸까.

‘무겁게 살지 말고 가볍게 살자’라거나, ‘남 평가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행복한 삶만 추구해라’라는 무책임한 대답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결론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다.

밀란 쿤데라는 인간이란 한없이 가볍고 허무한 존재라고 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만들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고 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제목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삶의 무게 배분, 잘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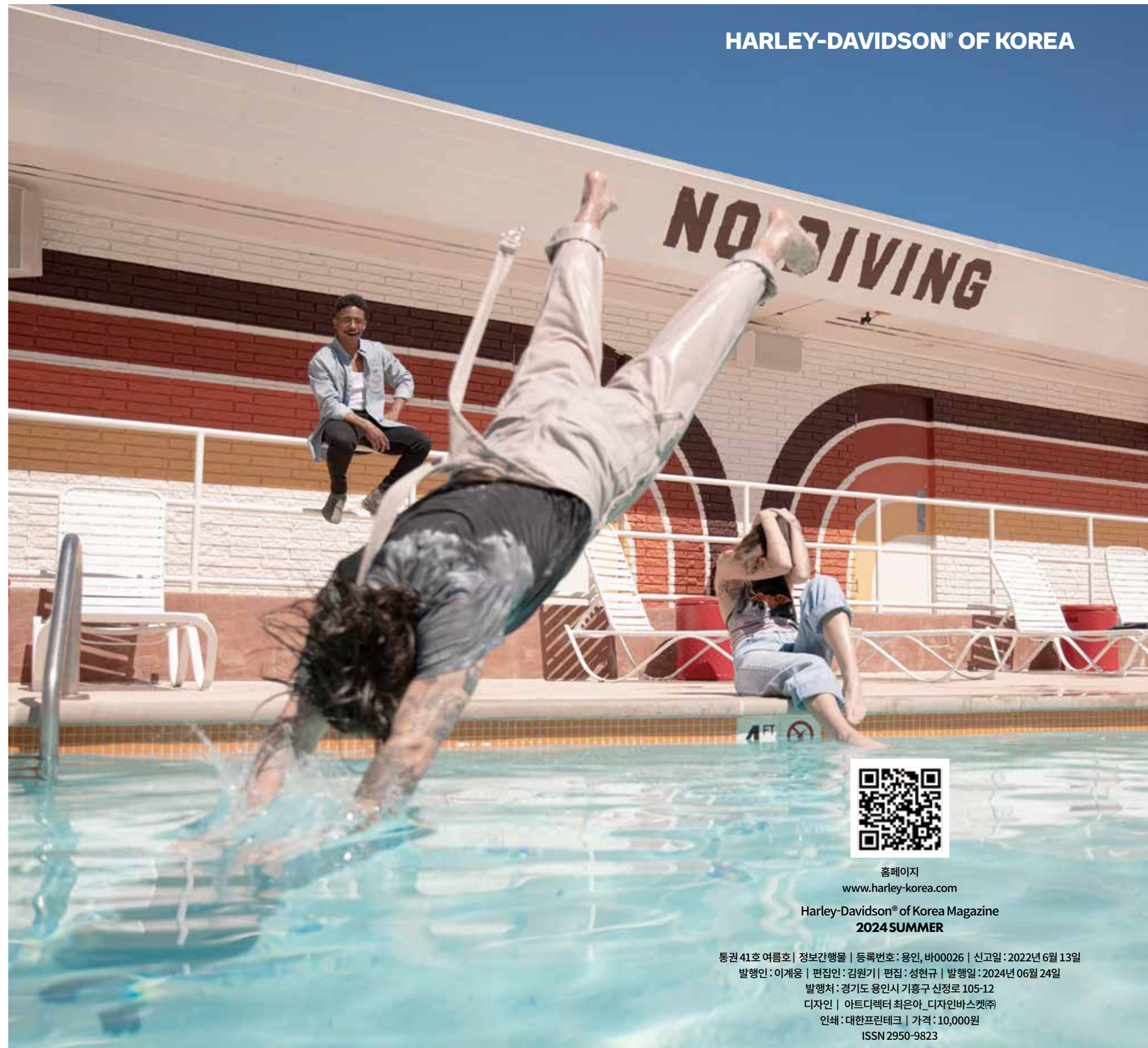
6월엔 모터사이클도 밀란 쿤데라식으로 타보자. 그동안 클럽 활동 수칙에 맞춰 엄격한 대열 주행, 늘 가던 성지를 다니던 라이더라면 혼자, 네비도 없이 새로운 길로 가볍게 가보면 좋겠다. 솔로 투어를 즐기던 라이더라면 한 번쯤은 챕터에 속해서 질서 정연한 라이딩과 그들이 좋아하는 성지를 함께 가면서 새로운 무게도 느껴보면 어떨까?

우리는 고뇌하는 존재다. 인간이란 존재의 가벼움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직접 삶에 무게를 더하고 빼면서 산다. 가벼운 하루는 즐거움을 주고, 삶의 무게는 존재의 이유인 무거운 행복이 된다. 삶의 무게를 더해보기도 하고 덜어보기도 해보자.

나는 이번 호를 쓰면서 ‘무조건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라는 무책임한 말과 ‘철 좀 들어라’ 강압적인 말을 놓아준다.

속제 풀듯이 살지 말자고.

모터사이클도 안 그러려고 타는 거니까.



HARLEY-DAVIDSON® OF KOREA



홈페이지  
[www.harley-korea.com](http://www.harley-korea.com)

Harley-Davidson® of Korea Magazine  
2024 SUMMER

통권 41호 여름호 | 정보간행물 | 등록번호: 용인, 바00026 | 신고일: 2022년 6월 13일  
발행인: 이계웅 | 편집인: 김원기 | 편집: 성현규 | 발행일: 2024년 06월 24일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05-12  
디자인 | 아트디렉터 최은아\_디자인바스켓(주)  
인쇄: 대한프린테크 | 가격: 10,000원  
ISSN 2950-9823

# CONTENTS

## #SUMMER

- 02 EDITOR'S NOTE
- 04 CONTENTS
- 06 RIDE RECIPE SEASON 2  
: 청량함 가득한 전라북도 코스
- 12 HARLEY® NEWS
- 16 MOTORCYCLE CULTURE COLUMN  
: 우리를 구원하러 온 모터사이클
- 20 HARLEY-DAVIDSON® SHORTS  
: 새로운 1% 클럽으로 초대합니다
- 24 LEGENDARY MOTORCYCLE  
: 소프테일 스탠다드 이야기
- 30 LEGENDARY MOTORCYCLE  
: BREAKOUT™ 117
- 36 I AM CUSTOM / PARTS & ACCESSORY  
: 지금까지 몰랐던, 타이어가 선사해오던 즐거움
- 40 APPAREL & LICENSING  
: SUMMER TIME MADNESS
- 42 정비실 이야기  
: 장인의 탄생
- 46 #할리했어오늘도  
: 오늘도 내일도 '할리'하며
- 48 HARLEY® PEOPLE  
: #2 다우니

### IT'S TIME TO RIDE는 항상 라이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IT'S TIME TO RIDE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TIME TO RIDE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성현규 대리 | E-MAIL: chuck@harley-davidson.co.kr

### IT'S TIME TO RIDE를 통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누리보세요!

광고 문의: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성현규 대리  
E-MAIL: chuck@harley-davidson.co.kr | TEL: 070-7405-8457

24



소프테일 스탠다드 이야기



다우니

48



BREAKOUT™ 117

30



#할리했어오늘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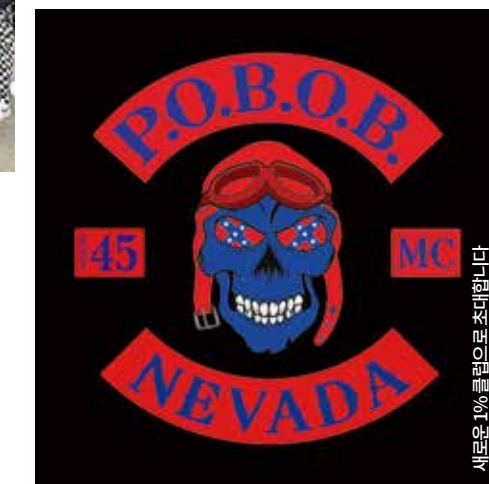


40



우리를 구원하러 온 모터사이클

16



세로운 1% 클럽으로 초대합니다

20



# 모터사이클 감성 충전 프로젝트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photograph 최동수(유튜버 BAFLIX)

## 청량한 전라북도로

입문할 때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점점 모터사이클을 타기 귀찮아질 때 그런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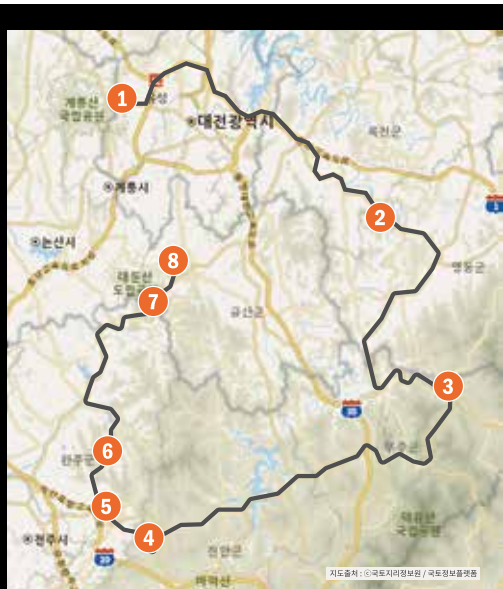
‘모터사이클 왜 타는 거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질문일 것이다. 처음 라이딩을 나갔을 땐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는데, 이젠 새로울 것 없는 라이딩에 감흥이 사라지는 것이다. 신선함이 없다.

우리는 온몸으로 즐길 때 그걸 ‘맛본다’고 표현한다. 도시를 떠나 오직 여름만이 주는 청량한 맛을 보고 싶다. 이번 코스는 입문자는 물론, 오랜 라이딩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배 라이더에게도 권유하고 싶다.

의무적으로 타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떠나보자.

‘아, 나 이래서 모터사이클 탔었지’ 싶을 만큼 청량하고 맛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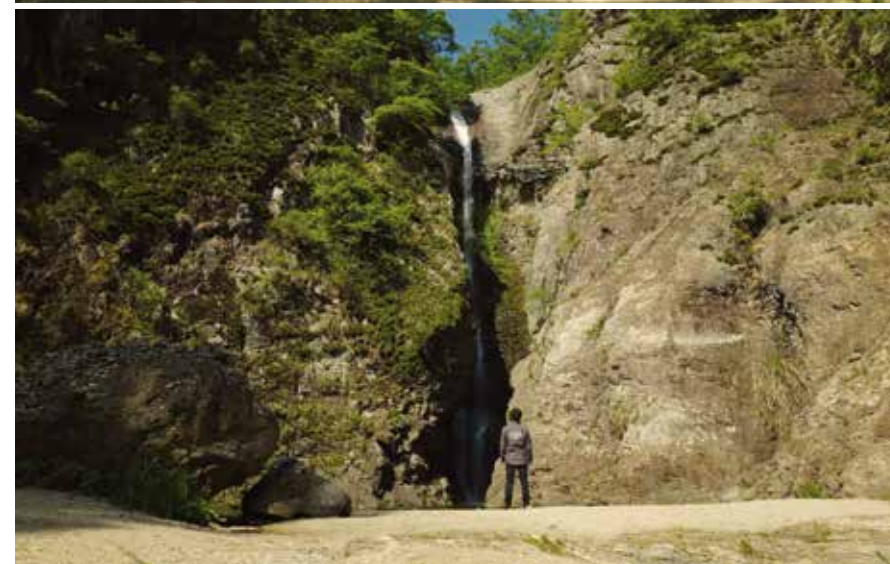
## 라이딩 코스 안내

- 1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대전점
- 2 옥계폭포 :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75-1
- 3 라제통문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85
- 4 진안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68-1
- 5 화심순두부 : (식당)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1
- 6 위봉폭포 : (경유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 7 나마스떼 : 카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2056
- 8 대둔산로 와인딩 코스 : (나마스떼-읍내사거리)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1 옥계폭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75-1)

박연폭포라고도 불리는 옥계폭포는 청량한 물줄기 소리와 폭포를 품은 배경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부터 수많은 시인들이 옥계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을 많이 남기기도 할 정도였다. 마치 정으로 정교하게 깎은 듯한 바위 사이로 20여 미터의 장엄한 폭포를 감상해 보자. 잠시 팔각정에 앉아 쉬거나 오솔길을 걸어도 좋겠다. 폭포 바로 앞까지 모터사이클로 올 수 있으나 진입로가 비포장길이니 조심할 것!



유튜브로  
코스 감상하기



## 2 라제통문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85)

무주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통문. 무슨 무슨 경 붙으면 일단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곳은 특히 더 좋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느긋하게 돌아볼 수 있고, 잠시 정차하여 소리까지 시원한 계곡에 귀도 기울여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라제통문은 사실 일제 강점기에 금광 개발 등을 위해 뚫은 굴이니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잠시 생각에 잠기기 좋은 곳.



3 진안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68-1)

수많은 영화와 CF, 드라마의 낭만적인 장면에 나온 ‘그 메타세콰이어길’이 여긴다. 길이가 약 1.6km에 달해서 아쉽지 않을 만큼 길~게 즐길 수 있다. 맹목적으로 푸른 나무 그늘 아래로 달리다 보면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길을 달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생각이 들 거란 확신이 드는 곳.

4 화심순두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1)

순두부와 비지락, 다진 고기가 들어간 얼큰하고 맛있는 순두부찌개 식당. 대표 메뉴인 ‘화심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운 일반 두부와 달리 제법 묵직하고 탄력 있는 특유의 두부 식감이 일품이다. 전라도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김치와 밀반찬도 함께 즐겨보자.



5 위봉폭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대둔산으로 넘어가기 전, 그림 같은 두 번째 폭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위봉폭포는 약 60m 높이의 2단 폭포로 그 규모가 큰데, 명승으로 지정될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2단으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명주실을 늘어놓는 것과 같다는 얘기로 통하는 곳이다. 그 풍경이 몹시 아름다워 오래전부터 비경으로 명성이 높다. 한창 푸른 숲 가운데로 쏟아지는 위봉폭포를 담아보자.





6 나마스테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2056)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성지 ‘나마스테’ 카페는 가는 길부터 좋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풍경을 헤치며 도착한 나마스테는 이미 몇몇 라이더가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히말라야 산악 등반 소품으로 꾸며놓은 인테리어와 마치 베이스캠프를 방불케 하는 외부 좌석은 묘하게 고요한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화사한 꽃과 녹음이 우거진 예쁜 정원도 있으니 투어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에 딱 안성맞춤.



7 대둔산로 와인딩 코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투어 중 마지막 종착지에 갈 땐 생각이 많아진다. 이번호는 투어의 마지막 코스를 열어두려고 한다. 대둔산로 와인딩 코스를 느긋하게 돌면서 모터사이클을 온전히 느껴봐도 좋고, 잠시 쉴 곳이 있다면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다. 집으로 돌아와도 이번 투어가 끝나지 않는 느낌이랄까. 이번 계절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랄까. ♡



2024.05.24 ~ 26

올해도 호그의 전통, 호그 랠리가 개최됐습니다. 2,500명이 모여 전국에 흩어져 있어도 늘 함께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행사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행사 기간에 우리를 반겨주었던 식당 사장님들, 그랜드 투어 때 우리의 행렬에 손 흔들어주던

태백시민들. 예전엔 모터사이클이 몰려들면 눈살을 찡그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환영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이번 26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 랠리에선 태백시와 지역 상생을 이루고, 할리데이비슨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이번 행사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를 품고 도착한 태백종합경기장. 행사장엔 슬라럼, 링 던지기, 로테오, 지역상인회 부스, 커스텀존 등 먹고 마시고 즐길거리가 가득 준비됐습니다. 다양한 후원사 부스도 참여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와 MOU를 맺은 DB 손해보험,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GMC, '김종국 건기식'으로 유명한 헬스케어 식품 브랜드 익

스트림(EXTREME), 등록된 모든 참가자에게 고급휘발유 '카젠' 주유권을 지급한 HD현대오일뱅크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참여해 참가자의 이목을 끌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전국에서 모인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들의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몽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이번 행사에서도 할리천사의 착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계숙 교수와 할리천사는 기부라이딩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했죠. 26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 랠리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 밴드 ‘부활’은 1시간가량의 미니 콘서트를 펼쳐 호그 멤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호그 랠리의 상징 ‘그랜드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태백시와 태백경찰서의 도움 아래 투어가 펼쳐졌는데요, 그랜드 투어를 하는 동안 태백시민들도 손을 흔들고 환영하여 가슴 뭉클한 퍼레이드로 기억됐죠. 새로운 전통으로 기억될 이번 호그 랠리 즐거웠나요?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감동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UNITED WE RIDE!



**할리데이비슨 보증 연장 프로그램**  
HARLEY-DAVIDSON® EXTENDED WARRANTY PROGRAM

할리데이비슨 보증 연장 프로그램 혜택



업계 최초  
최대 60개월 보증



최대 60개월 동안  
연심 주행



비용 걱정없이  
차량 관리 및 유지 가능



공식 서비스 센터 이용으로  
안심 관리

**할리데이비슨 보증 연장 프로그램**  
“엄격한 정비가 필요한 보증 서비스,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업계 최초로 최대 60개월까지 모터사이클을 보증하는 ‘할리데이비슨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는 비용 걱정 없이 모터사이클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죠. 지금 가까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서비스팀에 문의해 보세요.

**우먼스 데이 라이드**  
“강남 한복판으로 모인 여성 할리데이비슨 라이더”

**2024.03.27**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2024 WOMEN’S DAY RIDE. L.O.H(Ladies of Harley)와 여성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클럽 ‘아프로디테’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창립 25주년 기념 오픈하우스**  
“미국을 방문하는 특별한 방법”

**2024.04.13**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본사가 있는 용인점에서 펼쳐진 창립 25주년 기념 오픈하우스. 다양한 미국 브랜드와 콜라보 및 먹고 마실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16

HARLEY-DAVIDSON 17

# MOTORCYCLE CULTURE COLUMN

## 우리를 구원하러 온 모터사이클

writer 유주희(서울경제신문 디지털부문 기자)

어떻게든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 5년, 10년이 지난다. 실수투성이의 신참이 어느덧 조직에서, 사업장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찾아오는 낯선 감정.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의 습격이다. 친구였던 이들과 점점 낯설어진다. 평생 속마음을 나눠줄 것 같았던 고교 동창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만날 때마다 골치 아픈 회사 이야기뿐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연봉과 새로 뽑은 차를 언급하려 드는 또 다른 동창과는 술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찬란한 20대를 함께 했던 친구와는 인생의 향로가 달라서인지 점점 공통의 화제가 사라져 결국 옛날이야기만 반복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맥주 한 잔이 간절했던 어느 날, 누구에게 전화할지 한참을 머뭇거린다.

실화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다행히도 모터사이클이 구원이 됐으리라 믿는다. 내 경우에도 30대 중반의 웬지 모를 허전함이 술술 커져가던 시점, 이제 현상 유지만 남은 삶이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던 시점, 아무 이유 없이도 만나던 친구들이 서로의 삶에서 하나둘씩 퇴장하던 시점에 업무의 일환으로(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뭉뚱그리자면 그랬다) 모터사이클에 입문하게 됐다. 성인이 된 이후로 무언가 눈앞에 아른거릴 만큼 빠지기는 처음이었다. 퇴근 후에는 북악 스카이웨이의, 남산 소월로의 밤을 만끽하며 모터사이클을 즐겼다. 혼자여도 125cc 모터사이클 한 대면 세상을 얻은 듯 충만했다.

혼자만의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의 석양. 이 순간의 아련뭉뚱한 쓸쓸함조차 모터사이클의 묘미다.

모터사이클의 마력(魔力) 중 하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점이라고 믿는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입문 2년여 만에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내 삶에 입장했다. 증권시장을 취재하며 알게 된 금융권의 라이더들은 지금도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모임의 평균 연령 50세 이상인 탓에 다들 낡고 지쳐 모터사이클 투어 횡수는 현저히 줄었지만, 저녁 자리나 짧은 여행은 매년 성행이다. 간만의 투어가 아니면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사륜차로 약속 장소에 모인다는 점에서, 모터사이클 모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멋쩍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모임의 성격이야 어쨌든 다른 업계의 인생 선배들과 다양한 화제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오랜만에 만난 것도 아닌데 무척이나 반갑고도 궁금해서 서로 두서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난 친구들도 있다. 라이더들은 금세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든가, 투어를 가자든가 하는 말이 어렵지 않게 오간다. 물론 소셜 미디어 친구들이 갑자기 늘어났던 초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같은 라이더지만 꽤나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뭉칠 수 있을까. 그러나 의구심이 무색하게도 소셜 미디어 친구들과의 인연도 벌써 7, 8년째다. 모터사이클 투어뿐만 아니라 캠핑, 맛집과 카페 투어, 호러 영화 관람까지 으레 뭉치게 된다. 언제나 새로운 맛집 정보와 모터사이클 행사 소식을 재빠르게 공유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이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사실 모터사이클에 입문하고 처음으로 생긴 친구들은 사진기자 친구들이다. 나보다 앞서 입문했던 이들은



베트남 하장에서 하노이로 돌아가는 길, 체험적으로 입문 투어였지만 일행들의 표정은 밝다.



후식 중 정담게 나누는 기회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좌어가는 장소 옆의 간판이 마침 '프렌즈'다.

내고야 만다. 게다가 50, 60대가 대부분인 이 모임도 한번 ‘입도바이’를 시작하면 불이 붙는다.

최근의 모임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링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종종 들여다보게 되는, 기어코 피식 웃게 되는 한 장의 스냅사진 같은 추억이다. 인생은 그런 조그만 추억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심지어 빛나는 것이 아닐까.

이미 고배기량 모터사이클과 능숙한 코너링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펜기자들과 다른 사진기자들의 특징을 감히 꼽아보자면 이들은 근본적으로 한량 기질이 강하다. 각 매체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유능한 사진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해도, 가면을 벗어던지면 정말 잘 노는 사람들이다. 물론 칭찬이다. 덕분에 갓 입문한 라이더로서 엄두도 못 냈던 훌륭한 코스를 섭렵할 수 있었고, 이들을 코너에서 따라잡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 결과 라이딩 실력도 나아졌다.



나이가 점점 들고 있지만, 투어 도중에 찍은 사진들에선 언제나 열기가 넘친다.

지금의 체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루 16시간 라이딩, 4개의 시도를 넘나드는 왕복 400km 이상의 라이딩을 이들 덕분에 경험할 수 있었다.

종종 떠올리곤 한다. 친구들과의 첫 만남들을. 인터뷰이가 금융 시장을 자꾸 선박, 자동차 같은 탈 것에 빗대 물어보니 역시나 라이더였던 기억도 있고, 하필 첫 투어가 11월 중순이라 손끝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시렸던 기억도 선명하다. 동성 라이더긴 하지만 첫 만남에 집까지 초대받아가기는 조금 과하다 싶었던 느낌(알고 보니 나와는 달리 집 초대를 밥 먹듯 하는 사람으로 판명 났다.)도. 사진기자들과의 첫 투어는 특히 초보였을 때라 많은 배려를 받았겠거니,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 만인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준 그들이 지금도 고맙다.

친구들 덕분에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었다. 앞서 달리면서 도로의 위험 요소들을 피해 가도록 알려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코너에서 좀 더 시야를 확보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이를 이유로 모터사이클을 접은 친구는 고가의 에어백 조끼를 선물로 건네줬다. 혼자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다정함이다. ‘다정’과 ‘모터사이클’처럼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어느덧 초보 티를 벗고 모터사이클로 가득한 수천 개의 기억을 쌓아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목포까지 달린 날이 있었고, 홀로 남쪽 어딘가의 섬을 지나치면서 삶의 충만함을 확인한 날이 있었다. 태백 만항재에서는 구름 사이로 지상까지 이어지는 빗기둥을 처음으로 봤고 안동에서는 모터사이클로 초가집 사이를 누비는(하회마을은 숙박객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경험도 해봤다. 베트남의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렸던 기억, 로스앤젤레스의 바닷가 뷰포인트에서 잠시 멈춰 로망이 실현됐음을 깨달았던 날도. 좋아하는 추억의 플레이리스트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맨 상단에 자리 잡고 있을 법한 기억들이다.

우리 결의 모터사이클 친구들이 아니라면 추억들이 그토록 완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덕분에 오늘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딘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삶도 즐거울 것이라고 믿으며. 승

# 새로운 1% 클럽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맞서 싸우기 때문에.  
할리데이비슨이기 때문에.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돌아왔다. 사실 군인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모터사이클과 함께 돌아왔다. 전쟁터에서 직접 망가진 모터사이클을 수리했던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여가 시간에 모터사이클을 손보는 낙으로 지냈다. 당시는 지금처럼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받던 그들은 숨거나 몰두할 거리라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터사이클 클럽을 만들어 정비 지식을 나누거나 건전한 유대감을 쌓았지만, 곧 클럽은 바이커갱으로 변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그러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1947년 발생한 홀리스터 폭동 당시 캘리 참가자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홀리스터(Hollister) 퇴역군인으로 이뤄진 폭주족 단체, POBOB(Pissed Off Bastards of Bloomington : 블루밍턴의 열받은 녀석들)가 주최한 랠리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1947년, 당시 참가자 중 한 명이 행사 중 체포됐다는 이유로 4천여 명의 폭주족과 갱단이 유치장으로 쳐들어간 것이다. 이 사건은 홀리스터 폭동이란 이름으로 대서특필되며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전미 모터사이클 협회(AMA : American Motorcycle Association)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대사를 남긴다.

“단 1%만이 법을 어깁니다.  
99%의 모터사이클 라이더는 법을 지키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명은 모터사이클 시장을 더 키우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일반인들이 이 1%에 들고 싶은 로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양한 바이커갱에서 패치나 타투에 ‘1%’를 새기고 과시했다. 이 모습은 당시의 마초 문화와 격동하는 시대에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일반인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일종의 해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이후, 약 10년 동안 모터사이클 클럽 수와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때 클럽은 대개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전형적인 바이커갱의 모습도 이 시기에 자리 잡는다.



초기 바이커갱

당시 미국은 소란스러운 시대였다.

1920년대 미국은 돈과 기술이 넘쳐 흐르던 나라였다. 미국인들도 이때를 미국의 절정기로 기억한다. 집집마다 라디오가 1대씩 보급되면서 대중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길거리엔 화려한 클럽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스윙, 빅밴드 재즈 음악이 쏟아졌으며,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산업의 수도로 부상하면서 밤낮으로 카메라 롤이 돌아갔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행이라는 게 빠르게 생기고 퍼졌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파티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공황이 터졌다. 음악이 흐르던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흐르고 얼마 뒤엔 제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더니, 또 얼마 뒤 냉전도 발생했다. 전쟁 특수로 부를 쥐긴 했지만, 미국인들에겐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때 등장한 1% 바이커갱 문화는 소란을 틈타 벌어지는 일종의 폭동 같았다.



역동의 1920년대 미국

할리데이비스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저항을 상징한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무언가에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부모인지 혹은 아인지 모르지만, 할리데이비스이란 브랜드는 그것을 상징한다.

- 2011년 8월 23일, 신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전 할리데이비스 CEO 키스 완델

할리데이비스 모터사이클을 타는, 혹은 할리데이비스이란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정신에 끌린다. 과거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할리데이비스 라이더의 대답은 과격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짧게 보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이 겪는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도 서슴치 않는다. 예로 시한부인 6살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모터사이클 퍼레이드’를 보는 것이란 얘기를 듣고 주축이 되어 약 20,000대의 모터사이클을 몰고 국경을 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임직원은 물론 호그 멤버들 역시 아프고 어려운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현실에 함께 저항하고 있다. 이제 우리 할리데이비스의 저항은 이런 종류의 맞서 싸움이다. 세계 어느 국가의 할리데이비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봐도 어렵지 않게 선행에 대한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저항하고 있다.



Krach Fr Kilian (캘리포니아를 위한 소란)



새로운 1%를 찾습니다.

혼란의 시대의 1%는 위험한 ‘짓’이었다. 지금은? 단언컨데 지금은 위험한 ‘사람’이 1%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불의를 저지르면 제지할 수 있는 사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세우는 사람. 약한 사람과 함께 저항하는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할리데이비스이다.

불과 30~40년 전까지 우리도 강패 건달 같은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이 모터사이클 씬의, 혹은 이 세상의 1%인가? 승

# LEGENDARY MOTORCYCLE

## 소프테일 스탠다드 이야기

스탠다드(Standard)는 명사로 '기준', 형용사로 '일반적인', '보통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중에서는 '소프테일 스탠다드'만이 유일하게 '스탠다드'라는 단어를 모델명에 쓰고 있다. 직역하면 소프테일 스탠다드는 '소프테일의 기준' '일반적인 소프테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writer 김남구(바이커즈랩 기자)

photographer 한명륜(바이커즈랩 기자)



소프테일 스탠다드  
영상으로 보기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기종마다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넉넉한 프론트 페어링으로 장시간 혹은 장거리 라이딩이 쾌적한 기종도 있고, 사이드 케이스와 탑 케이스를 갖춰 투어가 편안한 기종도 있다. 이러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까닭은 탄탄한 기본기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그 기본에 있는 기종이 바로 '소프테일 스탠다드'이다. 소프테일 스탠다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든 할리데이비슨 모델 중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아메리칸 크루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담백함과 미니멀리즘이 있다.

#### 아직 쓰지 않은 공책

가장 먼저 차체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전반적인 차량의 실루엣에 과도한 꾸밈이 없다. 크루저의 아름다움이 오롯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앞 19인치 뒤 16인치 휠은 이상적인 전후 밸런스를 갖고 있다. 덕분에 차량 전반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에이프 핸들바, 매니폴드, 샷건 머플러, 사이드 미러 등의 파츠에는 크롬 컬러를 적용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차체에 생동감을 더하는 요소다. 탑 브리지 위에 무심히 올라가 있는 LCD 계기반은 미니멀리즘의 극치다. 탑 브리지는 물론이고 핸들바 계기반 커버까지 크롬으로 빛나며, 작은 크기의 화면에 속도, RPM, 주유량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된다. 디자인적으로 심플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는

셈이다. 이외에는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프테일 스탠다드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하다.

소프테일 스탠다드를 바라보면 다양한 스토리가 떠오른다. 순정 상태로는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도 더하지 않은 순정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분명 있다. 시시바와 리어 랙을 장착한 뒤 그곳에 방수백을 걸속하면 모토크램핑 즐기기에 좋을 것 같다. 또한 조그만한 윈드 스크린과 새들백을 장착하면, 먼 지역으로 1박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에도 무리가 없다. 결국 소프테일 스탠다드의 최대 장점이 이 지점에 있다. 크루저의 장기인 커스터마이징의 폭이 넓어 내 뜻대로 나만의 모터사이클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아무 글자도 쓰지 않은 새 공책 같아서 어떤 스토리라인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커스텀 자유도가 높다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단종된 '에볼루션 스포스터' 시리즈와 공통점이 있다. 브랜드 라인업의 포지션상이나 성격으로 보았을 때, 그 대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24년식 소프테일 스탠다드에는 그레이 컬러가 추가됐다. 이전 연식까지는 블랙 컬러로만 출시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시승 차량도 그레이 컬러였다. 열은 콘크리트 색상의 느낌이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풍겼다. 번쩍번쩍한 크롬 컬러와의 궁합도 딱 좋았다.





### ‘스탠다드’란 이런 것!

디자인에 이어 주행 질감에서도 담백함은 이어진다. 시트에 앉아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 전형적인 크루저 모터사이클의 포지션이 나온다. 적당한 높이의 에이프 핸들바는 그립을 잡으면 팔과 지면이 수평을 이룬다. '앞으로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살짝 굽힌 자세이다. 팔의 위치가 맞아서 적당히 거만(?) 하기도 하고, 선회나 유턴 시에도 무리가 없다. 즉 실용적인 부분과 타는 맛을 모두 만족시킨 셈이다. 힘의 작용점이 높아진 덕분에 핸들링도 가볍다. 맘껏 휘두르기도 좋고 제법 민첩하기까지 하다. 풋 포지션은 파워드 스텝이다. 단, 발이 과하게 앞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기준' '일반적인' '보통의'라는 전제가 포지션에도 적용된다는 인상. 어디 하나 불편한 구석이 없어 오랜 시간 주행해도 피곤함이 적을 것 같다.

엔진은 '밀워키 에이트 107'이다. 현존하는 소프테일 패밀리에 107엔진을 탑재한 기종은 소프테일 스탠다드와 스포츠 글라이드 등 두 기종뿐이다 하지만 소프테일 스탠다드의 출력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중량이 291kg으로 소프테일 라인업 중 가장 가벼운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밀워키 에이트 107 엔진은 밀워키 에이트 114 엔진에 비해 토크는 다소 약하게 느껴질지언정, 엔진이 주는 고동감은 더욱 또렷하게 느껴진다. 배기량이 작은 만큼 보어와 스트로크도 소폭 줄었고 이에 따라 엔진의 맥동을 알아차리기 더욱 쉽다고나 할까?

덕분에 어느 정도 가속감을 맛보기도 좋고 크루징을 즐기기에 좋았다. 이는 출력과 포지션 모두 ‘스탠다드’하기 때문이다. 곧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턱을 당기면 제법 스포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스로틀 그립을 과감하게 움켜쥐며 빠르게 기어를 올리면 힘차게 가속한다. 충분한 도파민을 생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속력과 쾌감이다. 반대로 몸에 힘을 빼고 기어를 4단에 고정, 2,500rpm으로 달리면 속도계가 시속 80km를 가리킨다. 이때 느껴지는 V트윈의 박동감과 진동이 일품이다. 속도가 빠르지 않기에 시선 뒤로 사라져가는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낫가에는 불규칙적이면서도 규칙적인 배기음이 들려온다. 촉각, 시각, 청각 모두를 만족시킨다. 브레이크는 월등한 정도는 아니어도 제때 멈춰 설 수 있을 정도의 제동 성능은 보여준다.



### 소프테일 스탠다드가 즐거운 까닭

마지막으로 이번에 소프테일 스탠다드를 시승하며 느낀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차량을 인수받고 달리기 시작한 지 채 5km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머릿속에 저항감 없이 떠오른 생각이 있다. '아 맞다. 나 할리데이비슨 좋아했었지'라는 일종의 영감이었다. 시승을 마친 현시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와 같은 느낌이 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소프테일 스탠다드는 가장 할리 다운 할리다. 최근에는 다양한 전자 장비와 여러 기능으로 안정성과 활용성이 높은 기종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할리데이비슨의 원초적인 매력은 감성적인 부분에 있다. 달리는 행위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특성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기종이 소프테일 스탠다드가 아닐까 싶다.

둘째, 현존하는 할리데이비슨 모델 중 가장 고만고만한 성능이다. 밀워키 에이트 107엔진의 토크는 144Nm이다. 이는 수랭식 엔진인 레볼루션 맥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언제 부턴가 할리데이비슨의 엔진이 지나칠 정도로 업사이징 되는 경향이 생겼다. 최근 출시한 로드 글라이드는 117 큐빅 인치이고, CVO™ 모델의 경우 121 큐빅 인치까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브랜드 내 경량급 정통 크루저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 이 공백을 메울 책임자가 소프테일 스탠다드일지 모른다. 대배기량이 내뿜는 묵직한 토크도 좋지만, 적당한 성능으로 가볍게 타기 좋은 기종도 할리데이비슨의 인기에 일조해 왔다. 이번에 내가 느낀 즐거움은 후자에 가까웠다. 소프테일 스탠다드가 잊고 지냈던 할리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다. 



LEGENDARY  
MOTORCYCLE

# BREAKOUT™ 117

2013년 CVO™모델로 처음 소개되어 현재까지 폭발적인 사랑과 두터운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레이크아웃. 그 최신 버전인 브레이크아웃 117을 통해 인기의 비결을 엿보았다.

writer 양현웅(월간모터바이크 편집장) photographer 월간모터바이크 편집부



LEGENDARY  
MOTORCYCLE



브레이크아웃  
영상으로 보기

자동차든 모터사이클이든 차체를 낮추고 길이를 늘이는 일명 롱 앤 로우 스타일은 시대를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낮고 긴 스타일의 차퍼 커스텀을 프로 스트리트라고 부른다. 70년대 중반, NHRA 프로 스톡(Pro Stock) 클래스 차량을 도로에서 탄다는 의미로 프로 스트리트(Pro Street)라고 이름 붙인 것이 그 유래다. 강력한 가속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 태어난 낮은 포지션이 그대로 이 장르를 대표하는 스타일이 된 것이다.

할리데이비슨이 110주년을 맞이한 2013년, 할리데이비슨 CVO(Custom Vehicle Operation™)부서는 CVO™ 브레이크아웃(CVO™ FXSBSE)을 세상에 선보였다. 처음부터 팩토리 커스텀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모델인 것이다. 21인치 프론트 휠에 240mm의 광폭 리어휠, 그리고 법적인 허용치까지 잘라낸 앞뒤 펜더로 박력 있는 스타일을 연출했다. 당연히 계도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 인기는 2015년 양산 모델인 FXSB 브레이크아웃으로 이어진다. 일반모델은 전체적인 구성이 현실화 되었지만, 특유의 낮고 긴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조금은 불량하게 연출되는 포지션이 매력적이었고 약간의 커스텀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2018년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소프테일 라인업에도 당연히 포함되었으며 2020년까지 그 인기를 이어갔다.



화려한 컴백

3년의 공백기를 가진 후 2023년, 브레이크아웃이 다시 돌아왔다. 할리데이비슨의 120주년과 브레이크아웃 출시 1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뉴 모델이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더 다부지고, 화려하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엔진과 배기라인 전체에 크롬파츠를 두른 것이다. 최근 할리데이비슨의 다크커스텀이 주류를 이루며 크롬 모델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크롬을 두른 모델은 실로 오랜만이다. 한눈에 봐도 존재감이 훨씬 커졌다. 여기에 초기 CVO™ 브레이크아웃의 터빈 휠이 재현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에 브레이크아웃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하면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조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최소한으로 줄여 명암을 극대화한 것이다. 그래서 긴 실루엣과 과장된 전후 휠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팔과 다리를 앞으로 뻗는 포지션은 여전히 독특하지만 핸들바가 몸 쪽으로 슬쩍 가까워지며 조금 더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 포워드 컨트롤의 풋패그는 거리가 제법 멀다. 이 포지션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다리 길이에 대한 자부심 가져도 좋다. 에어인테이크는 드래그머신에서 불법한 오픈형 헤비브리더가 장착된다. 프로 스트리트 차퍼의 근본이 드레그 레이서기에 꽤 잘 어울리는 요소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순정 상태에서 그립과 풋패그 정도만 바뀌주면 더 이상 손을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이정도면 CVO™와 비견될 정도의 완성도다.



밀워키에이트117

할리데이비슨이 감성을 앞세우고 성능 때문에 타는 바이크가 아니라고 말하다 보니, 이걸 성능이 떨어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의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는 충분히 빠르고 강력하다. 여유롭게 크루징 하는 할리데이비슨도 멋지지만 그르렁거리는 머슬가 소리를 뿜어내며 질주하는 할리데이비슨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충분한 힘을 지닌 자가 비로소 여유라는 걸 부릴 수 있는 법이다. 밀워키에이트 117엔진은 1923cc배기량에 102마력의 최고출력, 168Nm의 강력한 토크를 뿜어낸다. 수치로는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주행감각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태생이 드래그 머신에서 시작된 모델답게 상당한 가속력을 보여준다. 1단에서 시속 75km/h까지 가속할 수 있고 4초 남짓에 10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 미들클래스 스포츠 네이키드들과 비슷한 가속력인데 극단적으로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출력을 가속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스로틀을 거칠게 열면 240mm 광폭타이어조차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 고음의 단발마를 지른다. 하지만 빠르게 트랙션 컨트롤이 개입해 차체를 안정시킨다. 국내 사양은 트랙션 컨트롤이 기본 탑재되며 버튼으로 간단히 개입을 해제할 수 있다. 한바탕 대배기량 트윈 엔진의 화끈한 힘을 즐기고 난 뒤 페이스를 낮춰 여유로운 주행을 시작해 본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주행 감각은 그 완성도가 크루저가 도달할 수 있

는 정점에 달했음을 느끼게 해준다. 묵직한 차체가 중심에 있고 서스펜션은 노면의 자잘한 요철을 걸러낸다. 꽤 거친 주행에도 서스펜션이 한계를 치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엔진의 굵직한 토크를 이용해 낮은 회전수로 밀어붙이며 달리는 느낌은 환상적이다. 이건 다른 브랜드들이 벤치마킹하고 흉내 내려 노력하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다. 텅텅거리는 소리와 함께 투박한 듯, 하지만 절도 있게 끼워 맞춰지는 변속기 역시 할리다운 감각을 전해준다. 엔진의 열이 오른 뒤에는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엔진의 회전수가 800rpm 언저리로 뚝 떨어져 할리데이비슨 특유의 ‘포테이토’ 박자감에 가까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좋다. 순정 배기음이 볼륨은 작지만 소리 자체는 꽤 괜찮아서 배기 튜닝 없이도 공랭 트윈의 매력을 어필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할리데이비슨이 추구하고 있는 감성적인 라이딩을 공감하게 한다.





- 1) 240mm광폭타이어가 브레이크아웃의 존재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 2) 계기반은 핸들바 클램프에 포함된 아주 작고 간결한 타입이지만 예상보다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사용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 3) 21인치 터빈휠은 그 자체가 멋진 조형물이다. 액시얼 타입의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는 싱글디스크임에도 충분한 제동력을 만든다
- 4) 리어 서스펜션은 시트아래 감추어져있으며 초기하중은 다이얼을 돌려 조절할 수 있다
- 5) 연료탱크는 용량이 커지면 서 볼륨감이 한층 부각되었다

예상을 벗어난 핸들링

리어 240mm의 거대한 타이어에다가 직선 가속에 모든 걸 집중한 것 같은 디자인이라 코너링 성능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브레이크아웃의 어색했던 핸들링도 기억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핸들링의 변화는 극적인 수준이다. 포크 각도를 바꾸고 새시의 세팅을 개선한 덕분이다. 덕분에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정말 재밌게 탔다. 차체가 기울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고 기울임과 비례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느낌이다. 특히 셀프스티어가 강하게 말려들어오는 일이 없이 자연스러운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이 놀랍다.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엉덩이 쪽에 느껴지는 큼직한 덩어리감이 가끔씩 그 존재를 어필할 뿐이다. 낮고 긴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니 기울임 한계가 낮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만 그 한계 안에서는 안심하고 달릴 수 있었다.

완벽한 후속작

브레이크아웃. 어감이 주는 쿨한 느낌도 좋지만 사전을 살펴보니 명사로 탈출, 탈옥을 의미한다. 브레이크아웃이 일상을 벗어나 비 일상으로 만들어주는 매력을 지닌 모터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찰떡처럼 붙는 이름이다. 모든 영역에서 이전 모델을 압도하는 진화를 이룬 브레이크아웃. 이보다 완벽한 후속작이 있을까? ㅎㅎ



# 지금까지 몰랐던, 타이어가 선사해오던 즐거움

타이어에 숨어있는 기분 좋은 비밀

까만 고무, 타이어는 그 이상의 것이다. 엔진의 막강한 출력도 기품 있는 할리의 자세도, 훌륭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로 커스텀을 해도 타이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저 까만 고무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첨단 과학이 들어있다. *writer 최홍준(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타이어는 한 덩어리의 고무에 흠집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여러 층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재질을 다르게 해 모터사이클의 하중을 견디고 노면을 움켜쥐고 수분이나 이물질들을 배출하고 불안정한 노면의 충격을 견디고 서스펜션과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움직여주는 복합 과학물질이다. 모터사이클의 움직임과 출력 그리고 재미를 완성해 주는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타이어며, 종류에 따라 주행 특성이 달라지고 승차감과 접지력, 배수력 등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는 만큼 느껴지고 투자한 만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타이어기도 하다.





### 승차감

노면과 바로 맞닿아있는 것이 타이어이다.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한다. 현재는 튜브리스 타이어가 주류를 이루지만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양과 타이어 사이드 월의 하중 지수에 따라 충격흡수력이 결정된다. 타이어가 가장 먼저 충격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서스펜션이 담당하게 되는 것. 고로 적절한 공기압은 승차감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수명과도 직결된다. 최근 타이어들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공기압이 적으면 마찰면적이 늘어나 그립력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마모가 빨라지며 승차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많은 공기압이 들어가면 타이어 고유의 충격흡수성이 떨어지고 튼튼한 느낌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노면으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늦어져 그립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듯 타이어는 승차감과 직결된 파츠다.

### 접지력

벨트가 당기는 힘에 의해 타이어가 노면에 누르듯이 힘이 가해지는데 이때 타이어는 미세한 변형과 함께 콤파운드가 노면을 잡아채서 바이크를 움직이게 한다. 타이어가 경화되어 있거나 콤파운드가 좋지 못하면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노면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할리데이비슨은 20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면에 눌러있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접지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타이어 패턴이 다 닳았거나 오래되어 경화되고 있다면 현저히 접지력이 떨어지게 된다. 타이어는 표면이 조금씩 닳기 때문에 이 잡는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코너에서는 물론이고 직진에서도 미세한 미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디션 좋은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 아무리 엔진의 컨디션이 좋고 출력이 높은 모터사이클이라 하더라도 그 힘을 노면에 전달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타이어는 그만큼 중요하다.

### 안정성

타이어에는 제각각 고유의 패턴이 그려져 있다. 임의대로 새겨진 것이 아닌 접지력, 배수성, 승차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진다. 이 패턴에 따라서 직진성과 코너링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단순히 배수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 물론 우수한 배수성을 위해서 고안되기도 하지만 접지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배수도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진다. 이 패턴에는 마모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 패턴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해도 한계선에 다다라 있다면 콤파운드의 특성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정상적인 접지력과 배수성이 나오지 않고 또 표면이 얇아졌기 때문에 불순물에 의해 펑크가 나기도 쉬운 상태가 된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는 크고 작은 돌이나 모래, 금속 조각 등 다양한 것들이 떨어져 있다. 타이어는 그런 것들의 공격에도 버티기 위해 질긴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접지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순정 타이어인  
듀얼 스포츠와 미세한 패턴의 타이어

### 할리데이비슨

할리데이비슨은 순정 타이어 개발에 각별한 정성을 들이고 있다. 스포츠, 크루저,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 등 각 장르별 주행 스타일을 고려해서 제조사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내놓기까지 여러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한 타이어를 개발하는데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수백 시간의 랩타임, 수만 킬로미터의 로드 테스트 등을 거쳐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최적화한 타이어를 내놓는 것.

모터사이클을 원하는 곳으로 주행하고 싶다면 타이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편마모가 있으면 핸들링이 불안정해지고 올바른 주행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타이어는 모터사이클을 안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츠이다.☺

여름엔 더 쿨하게

# SUMMER



## CHILLING SET

### 01 남성 스터지스 알로하 반팔셔츠

- 한정판 빈티지 스타일
- 경량 레이온 찰리스 소재
- 캠프 칼라, 패치 포켓, 옆선 통풍구

### 02 바앤실드 데님 스트레치 모자

- 1980년대 스타일의 데님 모자
- 면 데님, 스판덱스
- 전면 니켈 엠블럼

### 03 남성 해거먼 부츠

- 고급 폴그레인 가죽
- YKK 지퍼
- Goodyear®웰트 제화법 적용

### 04 남성 밀워키 바지

- 코튼 헤비웨이트 트릴 소재
- 스트레이트 핏
- 포켓 포인트 다량 존재

# TIME MADNESS

여름엔 더 카리스마 있게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photographer 이진화(이지도르)  
venue 올드타운로드카페



## RUSH SET

### 01 버즈비 초경량 실드 J03 하프 헬멧 WHITE

- 섬유 유리 와 스펙트라 혼합 쉘 구조
- 선바이저, 스크래치 방지 선선티드
- 95% UV 차단
- DOT 안전 기준 FMVSS 218 준수

### 02 H-D 레블 3포켓 백팩

- 필수품 정리 전면 3포켓
- 소지품 고정 조절 스트랩
- 고밀도 폴리에스테르

### 03 남성 제퍼 2.0 메시 라이딩재킷

- 메쉬 소재 안감과 바디
- 스플릿 만달라 칼라
- 편의 포켓

### 04 남성 다이아 메시 장갑

- 플랫 니트 섹션, 메시 섹션 적용
- 너클 프로텍터, 부분 패딩 채움

# 장인의 탄생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정비사

전 세계 할리데이비슨 정비사가 경쟁하는 대회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에 그 대회의 자랑스러운 우승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에 근무하는 정비사는 약 1년에 걸쳐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각 국가의 정비사가 모여 경연을 펼치죠. 모든 테크니션이 경쟁하는 TOYA(Technician Of the Year Award)와 MTOYA(Master Technician Of the Year) 부문으로 나눠 경쟁합니다. 2023년엔 용인점 김권호 과장이 MTOYA 1등을, 용인점 홍승민 주임이 TOYA 1등을 수상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서비스팀의 새로운 장인을 소개합니다.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 서비스팀의 마스터 테크니션 김권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에 입사했고 2017년에는 잠시 다른 직업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정비라는 걸 알게 됐고, 현재는 전보다 더 제 업무에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봅니다. 특히, 당시엔 마스터 테크니션으로 승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도 있었죠. 이런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2023 MTOYA 우승을 거머쥔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Q 경력이 긴 만큼 다양한 케이스의 정비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실 기계적인 결함은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히 분해, 측정하면 확인할 수 있죠. 가장 어려운 건 ‘간헐적’ 증상에 대한 진단입니다. 바로 증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고객이 겪은 상황을 재현해 봐도 바로 안 나오면 수십 번을 반복해서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그마저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객과의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정비하는 사람으로써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Q MTOYA는 1년에 걸쳐 평가하고 경쟁하는데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실제로 약 7개월 정도 경연을 합니다. 매년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고, 전년도 우승자도 다시 참여할 수 있죠. 올해 마스터 테크니션에겐 멘토-멘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멘티의 작업 효율을 5% 이상 향상 시키는 미션이죠.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마스터 테크니션으로서 후배들에게 작업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보단 동기부여가 됩니다. 후배를 양성하고, 정비에 대해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게 되죠. 후임

MTOYA 우승자 김권호 과장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

정비사들에게 본보기도 돼야하기 때문에 기본기에도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업무에 익숙해져 넘겨짚거나 기본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됩니다.

**Q 후임 정비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경연이 시행된 첫해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본선에 진출한 직원들이 실제로 외국에 가서 행사와 경연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들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작년에 MTOYA에 우승한 저는 올해 미국투어에 참여하고, TOYA에 우승한 홍승민 주임은 제주투어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비 인프라가 중요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우승자와 함께 이벤트를 준비하니 자부심이 올라가기도 하죠.

**Q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테크니션 꿈나무를 위해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진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터사이클 정비는 라이더의 목숨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매뉴얼이라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 실수를 덮기 위한 거짓말도 정비실에서는 엄금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정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전 세계 할리데이비슨 공인 정비 교육은 준비돼 있습니다.

**Q 과장님만의 정비 철학이 있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판단을 넘겨짚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잡음이 들린다든지, 시동이 꺼진다든지 ‘아 저거 원래 나는 소리네’하고 넘겨짚지 않고 최대한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해결로 가는 지름길이 더라고요. 고객보다 제가 정비 지식이 많으니까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진짜 불편하고, 진짜 불편한 이유는 있을 테니까요.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승민 주임입니다. 고객의 모터사이클을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Q 정비하기 어려웠던 케이스, 그리고 그 케이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주세요.** 같은 모터사이클이라도 상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라이더의 성향과 주행 환경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비스팀으로 들어오는 모터사이클 컨디션도 제각각입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정말 다양한 컨디션의 모터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정비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만, 생소한 컨디션의 모터사이클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편인데요. 주변에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선배 정비사들도 많고, 관리자급에서 꼭 작업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정비를 마주하면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느껴져 설렘니다.

**Q 일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29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비실에 들어왔습니다.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그동안 느낀 게 있습니다. 2~3년 차 때는 배운 대로 작업을 잘 수행해서 모터사이클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기쁨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과물 자체에 만족하는 것보단, 고객이 이 모터사이클을 맘 놓고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기쁩니다. 이런 배움이 일하는 태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땐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컸는데 요즘은 작업을 할 때 이 프로세스를 왜 수행하고, 고객의 모터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고객의 모터사이클에서 추가로 점검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남은 시간엔 세차를 더 깔끔하게 해주기도 하고, 자주

TOYA 우승자 홍승민 주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

풀리던 볼트를 한 번씩 더 조여주기도 합니다. 일하는 보람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Q TOYA 우승하고 바뀐 게 있다면?** TOYA 워너 자격으로 방콕을 다녀오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방콕에서 AEM 사무실과 HDU 오피스 등을 방문했죠.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만나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글로벌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소속감도 더 강해지고요. 돌아와서도 여운이 남습니다. 한때 혹시 내가 우물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물이 좀 컸습니다. 바다였습니다.

**Q 가장 자신 있는 정비 분야가 있을까요?** 5년을 했지만, 아직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내에선 장인의 클래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뛰어난 동료와 선배 정비사들을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이거야’라고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건 익숙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재차 매니저에게 검수를 부탁하고,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종종 고객이 직접 찾아와 작업을 잘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즐겁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Q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을까요?** 중고 모터사이클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 상태를 잘 모르니까 걱정하면서 내방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도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진단 받은 문제 없는 모터사이클이라는게 확인되면 안심하고 다시 할리데이비슨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을 보면 우리가 신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중고 모터사이클 검수 작업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요즘은 자가정비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배터리, 악세서리를 직접 탈부착하거나 엔진오일을 직접 교체하기도 하죠. 별 것 아닌 작업 같아 보여도 종종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규정값에 맞지 않는 토크로 볼트를 조이거나, 정확한 자리에 부착하지 않아서 저희 서비스 센터로 돌아오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더라도 모터사이클에 데미지가 축적되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식 서비스 센터와 할리데이비슨 정품 사용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정비사로 성장하고 싶은지? 목표?** 저희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서비스 센터 정비사에게 목표를 물어보면 보통 다들 마스터 등급을 달성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내 정비사 등급 체계는 전 세계 할리데이비슨 테크니션의 표준이고, 어딜 가도 동일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획득하는 자격이기 때문이죠. 보통 마스터 등급이 되기 위해선 평균 10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터 등급이 되는데 목표입니다. 나아가 주변 선배 정비사에게 배움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시니어가 작업하는 걸 보면 정말 척척 박사입니다. 정말 척보면 압니다. 어떻게 일하면 얼마나 더 재밌고 보람찰까? 하는 생각이 들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경험치를 쌓겠습니다. ☺



# #할리했어오늘도

할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할리했어오늘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T2R 편집부가 선정한 라이더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writer* 윤영지 대리(할리데이비스 코리아 마케팅팀)



HOG - 나의 활력 충전 친구

@abbr.whowho 최경이

#스트리트밥

#프리랜서 #도시농부 #주부

**Q 할리데이비스 라이더가 된 계기는?** 사연이 길지만,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저에게 행복과 자신감을 채워주고 희망을 주려고 시작했습니다.

**Q 할리데이비스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늘 자신감 뽐뽐하는 점과 활력 충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점 입니다.

**Q 지금 클럽/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팀인가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성 라이더들이 모인 할리데이비스 여성 라이더 클럽입니다.

**Q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은?** 멋지다! 보기좋다! 재밌게 산다! 라고들 합니다. :)

**Q 나에게 있어 할리란?** 인생 2막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라고 하고 싶네요! 오랫동안 함께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26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 랠리에 참가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저희 클럽 멤버들과 함께 다같이 부활 공연도 보고 신나게 노래부르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같이 라이딩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할리’하며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할리한 흔적들을 남겨주세요.

**Q 할리데이비스 라이더가 된 계기는?** 학창시절 우연히 거리에서 할리데이비스 모델을 타고 순찰 중이신 교통경찰관분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포스에 감동받아 ‘나도 언젠간 꼭 멋있는 할리데이비스 라이더가 되겠다’ 다짐하였고,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을 구매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Q 할리데이비스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제 성격이 다소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할리데이비스와 함께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저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즐기게 되었고, 모든 일에 자신감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겨 현재 바이크 전용 디테일링샵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2의 인생을 할리데이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지금 클럽/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팀인가요?** '한량(HANRYANG)' 이라는 팀명을 가진 '대구' 할리데이비스 클럽입니다. 저희 클럽은 '20-30대' 젊은 할리데이비스 라이더들이 활동하고 있는 팀으로 체커보드 하의, 블랙 상의를 팀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젊은 클럽인 만큼 팀 분위기가 자유롭고 팀원들끼리 단합도 잘되고 가족같은 사이로 함께

라이딩 즐기고 있습니다.

**Q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은?** 묵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덩치도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성격자체가 묵직하고 친절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네요 :)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라이더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Q 나에게 있어 할리란?** 인생 제 2막을 열어준 나의 동반자

**Q 26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 랠리에 참가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이번 호그 랠리가 저의 첫 호그 랠리입니다. 처음 참가하는 만큼 설레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참가를 하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라이더님, 멋진 바이크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정말 알차고 최고의 2박3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수백명의 라이더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라이딩했던 그랜드투어는 정말 제 인생의 최고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잊지 못한 추억을 만들게 해주신 호그 랠리,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측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팀원들과 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행사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승



HOG - 인생 제 2막을 열어준 나의 동반자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바이크 디테일링샵 운영

@ggul.bike 정현진

## #2 다우니

“다하~! 내 이름은 다우니다우니♥”

유튜브 다우니 채널에 들어가면 대문부터 그녀의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그녀의 콘텐츠엔 응원과 반가움의 댓글이 많다. 약속 장소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마침 조용한 카페로 부는 바람도 좋았다. 응원하고 싶었다.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photographer 류효림



**Q 안녕하세요 다우니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T2R 구독자 여러분.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를 소개하고 있는 다우니입니다. 현재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 S를 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모터사이클을 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제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동네에 일명 땃땃이라고 불리는 스쿠터를 타시는 분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 땃땃이 뒤에 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맛봤던 주행풍에 ‘아, 나는 나중에 꼭 모터사이클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기억 덕분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입문은 예뻐서 고른 스크램블러 장르의 125cc 모터사이클로 했고, 그 뒤로 쿼터급과 몇 가지 리터급 모터사이클을 거쳐서 지금은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있습니다.

**Q 모터사이클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A** 저는 의외로 단순히 외형적으로 예쁜 모터사이클보다는 제 라이딩 스타일과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스포티한 라이딩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라이딩하는게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26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 랠리에 참여했는데 마침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을 태백에서 맞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Q 할리데이비슨 입문을 하고 싶었던 계기?**

**A** 스쿠터, 네이키드, 슈퍼 스포츠, 스크램블러, 카페레이서 등등 다양한 장르를 경험해 봤습니다.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친구에게서 할리데이비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보적인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시승을 해봤는데 이제는 정말 그 감성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Q 스포스터 S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우선은 예뻐요. 젊은 감성의 느낌이에요. 유연한 라인이지만 기계적으로 과격함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블랙 베이스의 색감도 예뻐요. 할리데이비슨만의 물방울 모양 탱크도 마음에 들구요, 일자 헤드라이트, 짧은 리어 등도 볼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에 입문하기 딱 좋은 가격대기도 합니다.

**Q 이제 스포스터 S 탄 지 3개월 됐잖아요. 다른 모델 타보고 싶은 게 있나요?**

**A** 스포스터 S 구매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용인점에서 펫보이도 타봤어요. 그때 느꼈던 할리데이비슨 특유의 공랭식 엔진의 감성도 잊을 수 없더라고요. 우선은 스포스터 S를 재밌게 타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밀워키 에이트 엔진이 탑재된 모델도 타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타보고 싶은 건 호그 랠리에서 타본 브레이크아웃 117이예요. 정말 정말 예쁘고 주행하는 재미도 남달랐습니다.

**Q 그룹 라이딩도 즐기시던데 ‘이런 라이더가 멋있어 보인다.’ 하는 게 있나요?**

**A** 즐거운 라이딩도 좋지만 안전하게 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룹 라이딩 중 리더쉽을 발휘해서 팀원을 안전하게 이끄는 리더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부 라이더분들도 멋있어 보여요. 같이 타시는 걸 보면 저도 꼭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꼽자면 뒤에 타고 싶습니다. 아빠 뒤에 탔을 때 무섭지만 든든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무섭지만 아빠가 있어서 괜찮

다는 생각. 미래의 배우자에게서도 느껴보고 싶은 로망입니다.

**Q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에 팬이 많다. 비결이 궁금하다. 삶의 철학이 있다면?**

**A**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늘 스스로를 응원해 봐요. 언젠가 읽었던 ‘보이지 않는 길 밖에도 세상은 있다’는 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마지막으로 T2R 구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는데요. 안전장비 꼭! 꼭! 잘 착용하시고, 혹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우니 유튜브 채널에 입문자용 모터사이클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할리데이비슨 라이프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달려요!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EXTREME



당신의 건강·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익스트림!

HD현대오일뱅크가 만든 고급휘발유



# 카젠

고급을 넘어 **고성능**으로

## KAZEN

HD현대오일뱅크  
앱 설치하고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99%는 강한 물음표를 던질  
1%에겐 가져야만 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단 하나

BE THE ONE

## GMC | SIERRA

